

# 초록빛 색깔여행...마음까지 물들겠네



순천의 여름은 '컬러풀'하다. 갈대숲은 초록빛으로 가득하고 국가정원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파스텔톤 매력으로 시선을 잡는다. 밤에도 화려한 조명이 켜진다. 화려함에 끌린다면 올 여름, 순천이 제격이다.

◇아직 안가봤니, 순천만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은 한국관광공사와 SKT가 공동으로 광역 지자체별 '국민이 선호하는 여름철(7월~8월) 관광지'에 이름을 올린 전남 대표 관광지다.

여름철, 정원은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짙은 녹색과 파랗파랗한 초록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녹색만 있는 건 아니다. 분명한 색깔로 시선을 끄는 꽃들이 널렸다. 장미꽃 향기는 여름 무더위에도 시들지 않고 코끝을 자극한다.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은 물빛을 머금은 푸르름으로 청량감을 안긴다.

밤에도 '물빛축제'가 열려 은근한 조명을 따라 거닐만하다. 대표적 힐링명소를 찾은 방문객만 300만명에 이른다.

## 여름꽃 만발 '순천만정원' 푸른 갈대 넘실대는 '순천만' 보는 재미 쏠쏠 '드라마 세트장'

◇걸어봤니, 순천만? =여름철 순천만을 거닐 어본 적 있는가. 온통 초록빛이다. 초록빛 바다 한 가운데 서있는듯한 작각에 빠질 정도다. 무진교 다리는 초록빛 바다로 이어진다. 초록 물결이 발을 간지럽히는 다리를 내려가 한 발씩 내딛으면 푸른 갈대가 밀려들며 온 몸을 감싼다.

김승욱은 '무진기행'에서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게 아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

은 적군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고 썼다.

온통 푸른빛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건 고물고물 움직이는 생명체. 철계, 농계, 쟁쟁이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기에는 제격인 곳이다. 용산전망대는 순천만 일몰, S라인을 그리며 도는 습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포인트다.

◇보는 재미도 쏠쏠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국내 최대 규모 드라마·영화 촬영장이다. 1960년~1980년대 판자촌과 골목으로 꾸며졌다. 촬영장은 순천읍내 풍경과 서울변두리, 언덕에 자리한 봉천동 달동네 세트장을 접할 수 있다.

어른들에게 그 시절의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당시 사람살이를 짐작할 수 있는 소품들이 적지 않다. 교복을 빌려입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는 것은 필수다. 달고나 등 추억의 과자를 SNS에 올리는 것도 해볼만하다.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9월 2일까지 개장 시간을 오후 8시로 늦췄다.

이외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철도문화마을, 기독교역사박물관 등은 외지인들에게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둘러보아야 할 순천 '명소'라는 게 토박이들 귀뜸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 정원 낮(왼쪽)과 밤

## 70명 어르신들 '생의 歷史'

市 '굽이굽이 고개 넘어 만난 행복2' 출간



순천시가 최근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표현한 70명의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순천시 제공>

고연석(77) 할머니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더라'는 책에서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인생을 솔직하게 썼다. 큰아버지 댁에서 자란 애기, 초등학교 졸업 무렵 6·25 전쟁이 나 중학교 대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열일곱 살에 천석꾼 부잣집, 구례로 시집간 내용,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밤낮으로 농사도 지어 가면서 살다가도 여섯살 딸이 아를 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었다는 고백에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 이야기 가 담겼고 그 시절 아버지·어머니의 이야기가 얹혀졌다.

고씨는 글 마지막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열심히 살다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건강 조심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고씨 뿐 아니다. 순천시가 출간한 '굽이굽이 고개 넘어 만난 행복'에 담긴 70명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순간순간은 교훈을 주는 하나의 역사였다.

'굽이굽이-2'는 순천시가 오·백석 마을에서 일생을 지낸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뒤 올해로 두번째다.

순천시는 격변기를 살아오며 독특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달하는매개체 역할을 하고 참가 노인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아 엮어냈다. 올해는 오·백석 뿐 아니라 동 지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박노동해서 산 집', '연금 통장을 받아두고 영영 울었던 기억', '감나무에 달린 남편 사랑', '나는 평생을 바다 사나이로 살았다' 등은 보릿고개, 6·25전쟁, 군사독재, 산업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웃음과 눈물로 보낸 70~80년 인생이 담겨있다. 힘겨웠지만 '고통'이 아닌, 그 시절들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힘이 됐다는 회고를 엮볼 수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 부모님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다.

순천시는 최근 '이름 없는 개인의 일생도 역사'라는 취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전국 지자체에 발송, 인생 행복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